

한반도의 공룡

K O R E A N O S A U R U S

한때는 지구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세계 곳곳의 깊은 지층에서 화석으로 잠들어 있는 공룡. 기나긴 생명역사를 기록하다 한반도 남부지방에 마지막 발자국을 찍은 뒤 사라진 비운의 주인공들. 1993년 스티븐 스피버그의 <쥬라기 공원>과 1999년 BBC의 <공룡 대탐험>에 이어 공룡다큐멘터리의 새 지평을 여는 EBS 다큐프라임 <한반도의 공룡>. 백악기 시대의 마지막 낙원,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들의 삶 속으로 떠나 보자. 글·김추영





우리 땅, 한반도에 지대한 공룡들이 되살아난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공룡발자국의 산지라는 것을 잘 모른다. 고성, 해남 등 남부 지역 전체가 백악기 후반 공룡들의 흔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000만 년 전, 지구는 하나의 지대한 대륙이었다. 쥐라기에 대륙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백악기에 이르러서야 오늘날의 대륙 구도가 형성됐다. 약 7,500만 년 전 한반도의 남쪽지역 곳곳에선 화산이 폭발하고 대륙이 갈라져 산과 평원, 호수를 만들었다. 이 신비로운 대자연의 주인은 다름 아닌 공룡. 특히 타르보사우루스는 백악기 시대 아시아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 과의 육식공룡으로 당시 공룡계국의 제왕이라 불린다.

다큐프라임 <한반도의 공룡>은 얼굴에 있는 두드러진 점 때문에 점박이라 이름 붙인 한 타르보사우루스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점박이는 제왕의 후손답게 매우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용맹함을 갖고 태어났다. 하지만 어린 시절 점박이와 두 형제를 괴롭히는 적들은 수없이 많다. 숲의 하이에나라 할 수 있는 벨로키랍토르와 삼지창 발톱을 가진 테리지노사우루스, 본능적으로 경쟁자를 제거해야 하는 또 다른 타르보사우루스 등.

어미는 위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먹잇감을 사냥하고 새끼들을 돌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미가 사냥터에 가 있는 사이 막내 타르보사우루스가 벨로키랍토르에 의해 희생된다. 때문에 어미와 타르보사우루스 형제는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긴 여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자연환경 변화에 의한 혹독한 시련은 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갈증과 배고픔, 줄어드는 사냥감. 위기 속에 하나 남은 형제마저 잃은 점박이는 어미와 단둘이 먹이를 찾아 헤맨다. 다행히 무리를 찾아 이동하는 친타오사우루스를 사냥해 위기를 넘긴 어미와 점박이. 술한 위기는 어린 점박이를 계속해서 괴롭히지만 또한 그를 단련시킨다. 점박이는 시간이 지나 숲 속의 프로토케라톱스 한 마리를 단독 사냥하면서 화려한 성인식을 치른다. 이를 지켜본 어미는 이제 점박이를 독립시켜야 할 때가 됐음을 알게 된다. 어미를 떠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러 떠나는 점박이.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interview



왼쪽부터 김동성 카메라감독, 한성호 PD

해남, 보성, 여수 등 남해안 일대 전체가 공룡 유적지다. 어떤 지역은 공룡들의 무도회장이라 불릴 만큼 온갖 종류의 공룡발자국으로 가득하다. 아이들이 우리나라 화명을 가진 공룡을 보고 자랐으면 좋겠다.

〈한반도의 공룡〉의 주안점은?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에서 벗어나 영화 이상으로 만들고 싶었다. 〈한반도의 공룡〉이 방송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 주는 작품이 됐으면 한다. 해설이나 자막으로 설명하는 자연다큐멘터리가 아닌 그 시대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영상과 음향, 스토리 등 모든 면에 주안점을 뒀다.

컴퓨터그래픽, 음향 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민병천 감독이 어끄는 '올리브 스튜디오' 스태프들과 함께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했다. 올리브 스튜디오는 〈궁〉, 〈유령〉, 〈내추럴 시티〉 등을 작업했고, EBS에서 방송되는 〈코코몽〉을 기획·제작해 SICAF 우수 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한 컴퓨터그래픽 분야의 전문가다. 60여 명의 스태프가 비주얼 콘셉트부터 테스트까지 1년 동안 CG작업에 매달렸다.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을 삽입

공룡다큐멘터리를 선택한 이유는? 〈쥬라기 공원〉을 보며 공룡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공룡은 아이, 어른 모두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룡 유적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은데, 고성, 함양, 보성, 여수 등 남해안 일대 전체가 공룡 유적지다. 어떤 지역은 공룡들의 무도회장이라 불릴 만큼 온갖 종류의 공룡발자국으로 가득하다. 아이들이 우리나라 화명을 가진 공룡을 보고 자랐으면 좋겠다.

하려고 전곡을 작곡 및 편곡했다. 상상이 되지 않는 8,000만 년 전 공룡의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스튜디오 케이'에서 음향을 담당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공룡의 세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작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룡의 움직임 및 동선 파악을 위해 완벽한 사전준비와 숙지가 필요했다. 자료조사와 시나리오 작업,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2D 동영상 콘티와 3D 콘티작업 등 복잡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후 실제촬영에 들어갔다. 촬영 시 어려웠던 점은 콘티에 따라 10~2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공룡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스태프들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따라가고자 공룡과 비슷한 크기의 막대에 큰 머리를 붙여 동선을 파악하고 그 느낌을 살려 촬영에 들어갔다.

〈한반도의 공룡〉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명장면이 있다면? 타르보사우루스와 테라지노사우루스의 마지막 결투 신이다. 타르보사우루스인 주인공 짐박이와 숲의 검객이라 불리는 테라지노사우루스의 최후 결투장면으로 〈쥬라기 공원3〉와 〈킹콩〉의 결투 장면을 능가하는 박진감 넘치고 장대한 영상을 보여 준다.

지금으로부터 8,000만 년 전에는 우기와 건기만 있는 아열대 기후였다. 우기가 올 때 물과 숲을 찾아서 사막을 건너는 수천 마리의 친타오사우루스의 이동 장면도 장관이다. 친타오사우루스가 대륙을 횡단하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항공 촬영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촬영 기법을 이용했다. 이 장면은 마치 공룡 무리의 사이사이를 지나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역동적인 영상을 보여 준다.



8,000만 년 만에 다시 깨어난 토착 공룡들

한반도에서 다시 깨어난 '숲의 제왕' 타르보사우루스(점박이)

몸길이 10미터에 머리 크기만 1.5미터, 날카로운 발톱의 길이만 30센티미터가 넘는다. 백악기 후반 공룡세계를 주름잡았던 제왕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남들이 잡아놓은 고기나 시체를 청소하는 공룡으로 알려졌으나, 먹잇감을 앞에 두고 순식간에 닦아내는 순발력은 탁월하다.

숲의 검객 테라지노사우루스

10미터의 큰 몸집에 앞발엔 70센티미터가 넘는 세 개의 발톱이 있다. 평소엔 초식을 즐겨 먹는 순한 공룡이지만, 다른 공룡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는 가차없이 공격하는 냉혈한이다. 순하고 고독한 초식공룡으로 살다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점박이의 새끼를 물어 죽인다. 이를 계기로 점박이와 최후의 결투를 벌인다.

공룡 숲의 하이에나 벨로키랍토르

몸길이가 1.8미터 정도의 어른 크기며,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제2의 포식자. 프로토케라톱스, 친타오사우루스 등을 공격하며 점박이의 동생까지 죽게 한다.

백악기의 돼지 프로토케라톱스

몸길이 2미터의 초식공룡으로 얼굴엔 크고 화려한 주름장식이 있으며 가는 발 때문에 비교적 빨리 달린다. 암우새 부리처럼 생긴 주둥이로 나무뿌리를 가위처럼 잘라 먹고살며, 순한 것 같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맞설 줄 아는 용감성도 갖고 있다.

8,000만 년 전 하늘의 주인 해남이크누스

날개를 펼치면 10미터 정도의 크기로, 하늘을 날 땐 마치 큼직한 행글라이더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매년 짝짓기를 위해 먼 여정을 반복하며 알을 보호하려고 무리지어 알을 낳는다. 주로 죽은 공룡을 먹거나 온종일 강변 진흙에 앉아 가재, 지렁이, 조개 등을 파먹는다. 걸을 때는 마치 보자기를 쓴 사람이 내 발로 걷는 것처럼 보인다.

숲의 공주 마이크로랍토르

몸길이 0.8미터에 무게가 20킬로그램 정도로 숲의 공주라 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한다. 몸 전체가 예쁜 색깔의 깃털로 쌓여 있으며, 몸이 가벼워 활강을 즐긴다. 주로 나무 위에서 곤충들을 먹으며 생활한다.

대륙을 횡단한 초식공룡 친타오사우루스

가장 순한 공룡으로 머리에 깃 벚이 있어 동료와 연락할 때는 트럼펫 소리를 낸다. 초목이 주식이며 몸길이는 10미터에 달한다. 발톱이 없는 대신 앞굽 모양의 네 발이 있어 물속도 쉽게 드나든다. 한 번에 20여 개의 알을 낳았으며, 타르보사우루스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으로 늘 불안하게 살아 간다.

도착 거대공룡 부경고사우루스

몸길이는 23미터, 무게만 60여 톤, 하루에 350킬로그램이나 되는 식물을 먹어 치워 무리가 지나가면 숲은 황폐화된다. 타르보사우루스조차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크고 위용을 갖는다.

